택배전쟁 시작… 설 선물 열흘전엔 보내세요

육류·과일류 주중 배송해야 신선도 유지

운송장 직접 작성, 배달 완료때까지 보관 필요

설을 10여 일 앞두고 또다시 '택배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자칫 배달이 늦어져 선물 전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 물동량은 설 연휴 시작(30일) 일주일 전인 20~22일 3일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선물을 여유 있게 보내려면 가급적 이번 주 안에 발송하는 게 좋다.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허술한 포장과 배송 시기를 잘못 택했을 때 원치않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선물 배송에도 요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또 "깨지기 쉬운 물품은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스티로폼이나 에어폼 등을 사용하고, 포장지 겉면에 '취급주의' 등의 표시를 해야 안전하며 분실이나 파손 등을 예방하려면 운송장의 주소와 연락처, 품목 등을 직접 작성하고 운송장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내는 선물이 냉장·냉동 보관을 요하는 육류나 과일류일 경우 화~수요일에 보내 주말 전에 받게 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주말에는 집을 비우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보관기간이 길어지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 택배사는 명절 성수기에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 임시 택배카운터를 설치해 운영하므로 이 곳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물건을 산 매장에서 바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또 명절 기간에는 콜센터 이용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전화 연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택배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택배예약과 화물추적 조회는 물론 서비스 안내, 불만접수 등을 기다리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수기에는 집하·배송 시간도 예측이 어려운 만큼 편의점 등 주변 가까운 택배취급점을 이용하면 쉽고 빠른 이용이 가능하다.

백화점과 유통업계도 설 선물 배송이 몰릴 것에 대비해 한층 업그레드된 시스템을 운영, 배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설 선물 상담 특별팀을 구성해 상담과 무료 배송을 진행하는가 하면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사용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사용하고 있는 지번과 새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설 명절을 준비하는 고객의 불편을 덜고자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을 위한 특별 배송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국세청장 취임 나동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4일 광주시 북구 정부지방합동청사 2층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차원의 적극 지원을 강조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훼손 우려 물품 '파손주의' 문구 표기를

공정위, 설 앞두고 택배·상품권 등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택배, 선물세트, 상품권,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배송지연으로 음식이나 선물이 명절 전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주요 사례다.

공정위는 명절 전 최소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고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야 택배와 관련한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선물세트의 경우 전시용으로 진열됐던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상품권은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했다가 구매 물량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

한복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및 대여하는 경우 배송지연 등을 이유로 정작 명절에 입지 못하는 피해 신고가 잦았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했을 때에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해외배송임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도 많았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이 반품비용을 사전에 알리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구매 당시 배송비용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자는 반품 해외운송료와 국내 반송비 등 실비만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위약금이나 구매대행 수수료,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청구할 수 없다.

설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에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세관, 설 제수용품 원산지 특별단속

14일~내달 13일까지

광주세관(세관장 조훈구)은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설 및 대보름 명절 수요 증가를 틈타 국내산으로 바뀌어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제수용품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명절을 전후해 농수축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이에 편승한 농수축산물의 불법반입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광주시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단속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이 이루어짐으로 단속 실효성의 국민 체감도가 그 어느 해보다 크게 느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저가의 중국산 농수산물 등이 고가의 국산 제수용품으로 둔갑하는 등의 불법 원산지표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한우·돼지 감소 젖소·닭 증가

지난해 4분기 수산물 소비부진과 계란 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 닭 사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2월1일 기준 가축사육 마릿수는 전분기 보다 한·육우와 돼지, 오리는 감소하고 젖소와 산란계, 육계는 증가했다.

이 중 한·육우는 48만9000마리로 전분기보다 1만9000마리(3.7%) 감소했다. 이는 어미소 감축에 따른 송아지 생산 감소와 도축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돼지는 99만7000마리로 전분기보다 3만8000마리(3.7%) 감소했는데 이든 어미돼지 감축에 따른 생산 마릿수 감소와 도축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닭은 1522만1000마리로 전분기보다 285만7000마리(23.1%) 증가했다. 산란계는 364만7000마리로 전분기보다 28만8마리(8.6%) 증가했으며 육계는 1113만3000마리로 전분기보다 257만4000마리(30.1%) 늘었다.

이 같은 증가는 지속적인 육계, 계란 산지가격 호조와 함께 수산물 소비부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오리는 468만4000마리로 전분기보다 65만2000마리(12.2%) 감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4일 광주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사회적기업 상품전시관' 개관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되고 있다. 상품전시관은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된다.

〈광주은행 제공〉

13개 사회적기업 60가지 상품 전시·홍보

광주은행 본점서 '상품전시관' 개관식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14일 오전 본점 1층 로비에서 '사회적기업 상품전시관 개관식'을 가졌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은행은 사회적기업 제품홍보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상품전시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365일 연중무휴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은행 1층 로비에 설치된 상품전시관에는 사회적기업활성화 광주네트워크에서 참여신청 접수를 통해 선정된 ㈜김옥심명품김치(각종김치류), 소화아람일터(유용미생물비누, 세제), 바이로컬㈜(건어물, 잡곡), (사)어울림(건강기능식품), 엠마우스산업(양초, 화장지, 문서화일), 엠마우스일터(참기름류), ㈜한글피움(매직머그컵), ㈜네이처로그(오가닉 베게, 쿠션, 타올), 발효코리아(유기농 약초수), ㈜아성산업(샤시제조),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수제쿠키, 두부과자, 마늘빵), ㈜광주크래프트센터(미니머그, 소이캔들), ㈜상록수편백나무공방(편백나무소품) 등 총 13개업체 60여가지 상품이 전시·홍보된다.

광주은행과 사회적기업활성화 광주네트워크는 앞으로 상품전시관 운용을 통해 사회적기업들의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고 기업들의 수익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회적기업=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이다.

작년 복권판매액 3조2000억… 5년새 35% 늘어

작년 한 해 동안 팔린 복권이 3조2000억원어치를 넘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2008년 대비 35% 늘어나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복권 판매액은 총 3조2335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액이 2조9896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금복권 등 인쇄복권이 2104억1000만원, 전자복권이 335억1000만원어치 팔렸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5년 전인 2008년 판매액 2조3940억원보다 8395억3000만원(35%) 늘어났다.

가장 인기가 많은 온라인복권(로또)의 경우 출시 초기 '로또 열풍'으로 판매액이 각각 3조8000억원, 3조2천800억원까지 치솟았던 2003년과 2004년을 제외하면 2005년 이후로는 지난해 판매액이 2조9000억원대로 가장 많았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 판매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수반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복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복권 판매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